



“삶포세대의 한숨”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결혼의 현 주소

2015 한국경영학회 ‘결혼 문화와 국민 의식’
Presenter 박수경 듀오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Contents

- 결혼의 의미
- 어려운 결혼 환경
 - 통계로 보는 국민의식
 - 현대사회의 결혼문화
- 결혼 & 의식 변화
 - 결혼 원하는 사회를 위하여
- 질의응답

Chapter 1

결혼의 의미

1. 결혼경제학적 관점
2. 전통·규범적 관점
3. 현대 사회의 변해가는 결혼
4. 부모 VS 청년 세대의 관점

01

02

03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행동

WHY SO?

- 자신의 선택을 위한 가치 기준 有
-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함
-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시장이 존재

결혼경제학의 효용?
가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01

02

03



사회적 시각에서의
결혼이란?

특정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사회가 제도로써 수용한 것

전통적 의미의 결혼이란?

- 3세대 대가족 시스템
- 가족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것
- 맞선을 통한 중매혼 多
- 여성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낮음

현대사회의 결혼이란?

- 핵가족 • 2인 가족이 多
-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 더 이상 '여성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님
- 여성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증가

결혼의 의미

01

02

03

현대사회의 배우자 선택 기준의 변화

〈듀오 이상적 배우자 象 2004년 조사〉

2004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인기 신랑감

인기 신붓감

29.9세

결혼적령기

29.5세

3,790만원

연봉

2,350만원

공무원·공사 > 의사·약사

직업

교사 > 공무원·공사

(경제력) 성격 > 가정 환경 > 외모

고려 요소

성격 > 외모 > 경제력 > 가정 환경

남성의 **경제력**이
배우자 선택 시
고려 1순위였던 10년 전!

〈듀오 이상적 배우자 象 2014년 조사〉

2014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인기 신랑감

인기 신붓감

175.4cm

신장

164.6cm

4,927만원

연소득

3,843만원

2억 6,588만원

자산

1억 7,192만원

여성보다 3~4살 연상

연령차이

남성보다 3~4살 연하

4년제 대졸

학력

중요하지 않음

공무원·공사 > 사무직 > 금융직

직업

공무원·공사 > 사무직 > 교사

(성격) 경제력 > 외모 > 가정 환경

고려사항

성격 > 외모 > 가계관 > 직업

배우자 선택 시
남성의 경제력보다 **성격**을
중요시 여기는 현재!

결혼의 의미

01

현대사회의 배우자 선택 기준의 변화

02

03



“이제 남성도 여성의 **능력**을,
여성도 남성의 **외모**를 보는 시대!”



01 부모 VS 청년 세대가 결혼을 보는 시각차

02

03

Q. 당신의 자녀가 결혼했으면 하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순위	전체	
1	20대 후반	35.4%
2	30대 초반	29.3%
3	나이 상관 없이 자식이 원할 때	11.0%
4	20대 중반	8.5%
5	30대 후반	6.1%
6	20대 초반	4.9%

(출처: 패널나우 설문기관, 2012)

Q. 귀하가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는 언제인가요?

순위	전체	
1	30대 초반	51.9%
2	20대 후반	34.6%
3	30대 중반	8.0%
4	20대 중반	5.4%
5	30대 후반	0.2%
6	40대 초반	0.0%

(출처: 결혼정보회사 듀오, 2011)

다수의 미혼남녀가 30대 초반을 결혼 적령기라고 인식,
부모 세대는 20대 후반에 결혼 해야 한다고 생각 多

Chapter 2 어려운 결혼 환경

삶 포 세 대

1. 삶포세대의 한숨
2.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3. 결혼 비용과 결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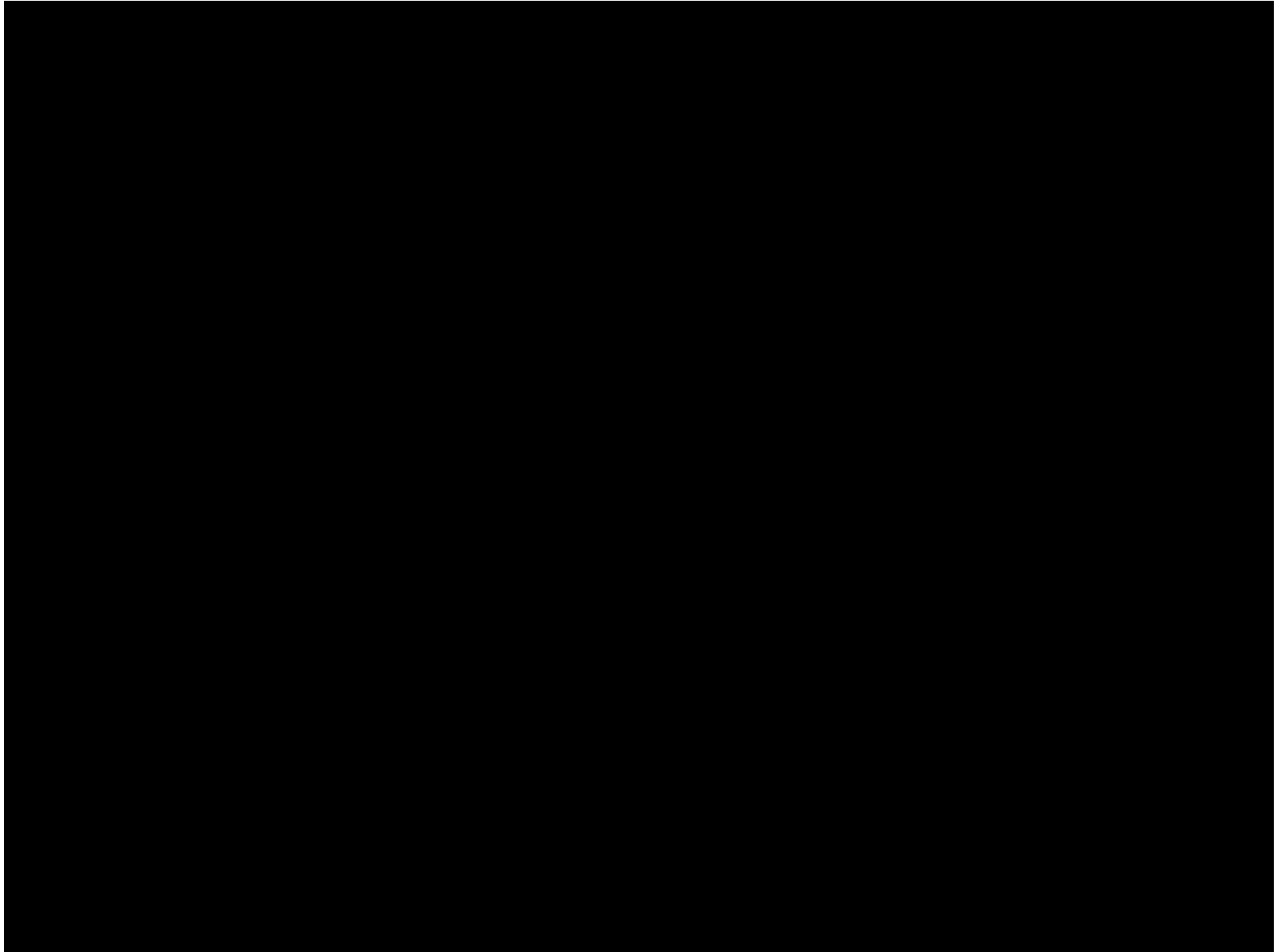
‘삼’ 포세대의 한숨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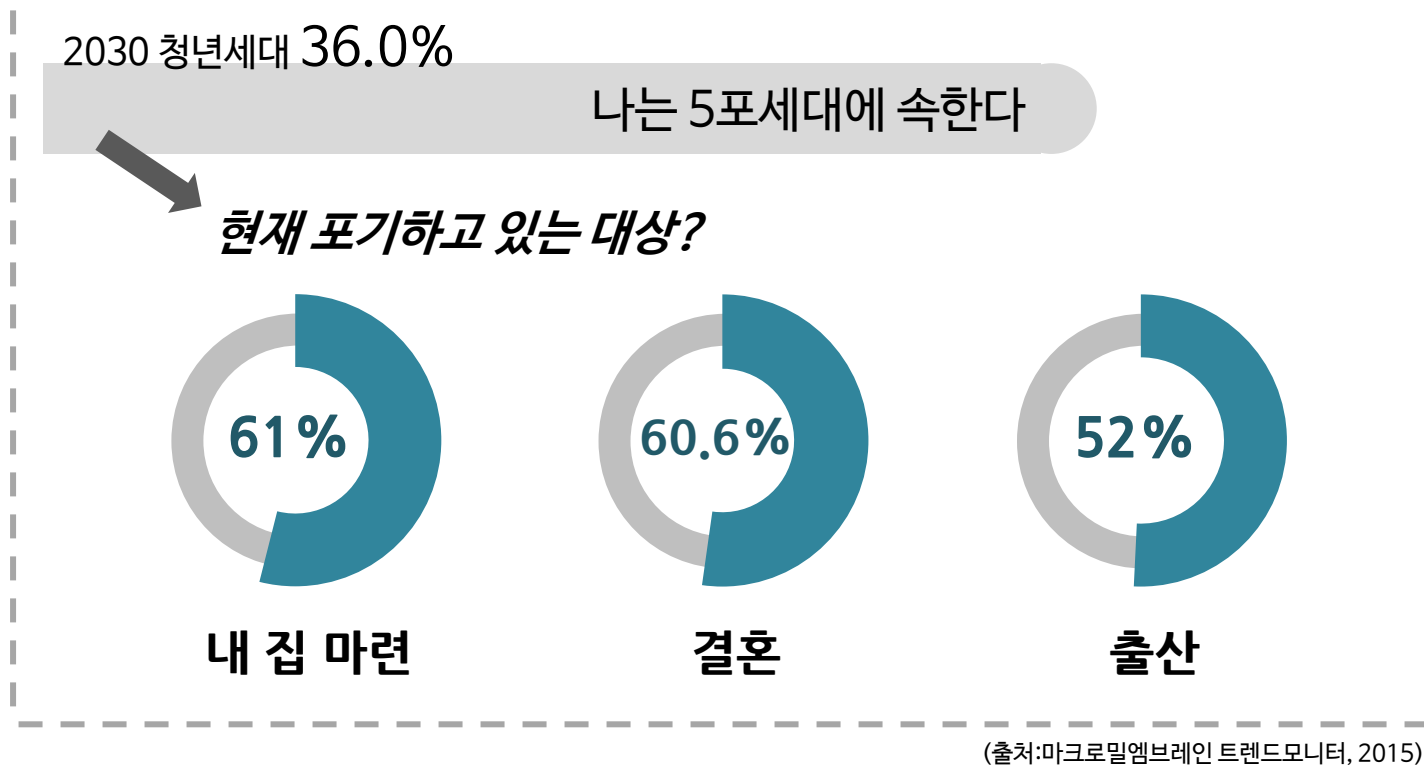
01

당신도 ‘삶포세대’인가?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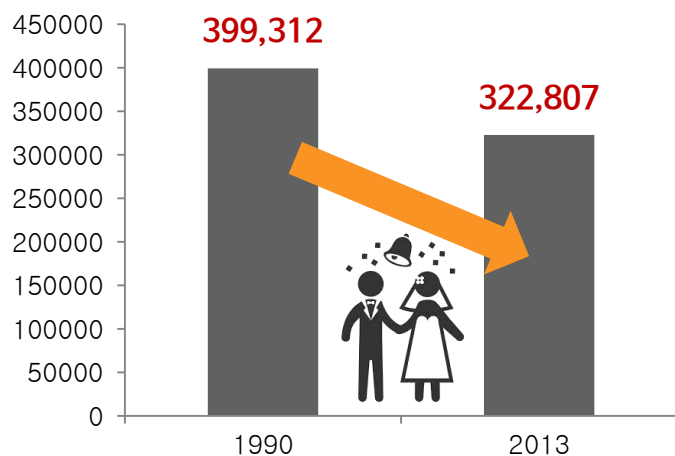
2030 청년세대 85%
“향후 5포세대 문제 더 심각해질 것”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이혼 · 재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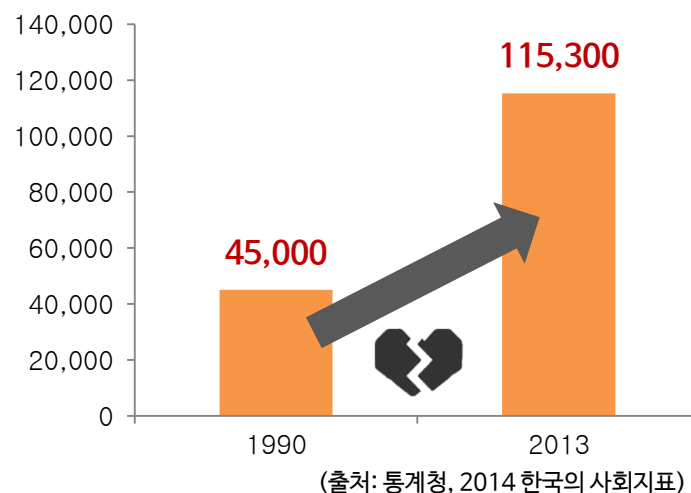
01 “초혼은 줄어듦, 재혼·이혼만 늘어”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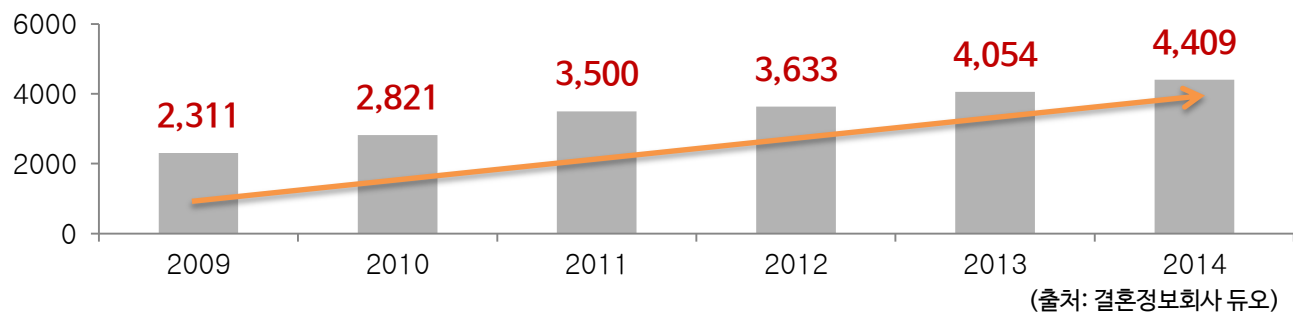
〈전체 혼인 건수 추이〉



〈전체 이혼 건수 추이〉



〈듀오 재혼 회원 추이〉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2015 혼인 통계

01

통계청 발표, 2014년 혼인율 역대 최저!

02

03

04



(출처: 통계청, 2015)

“미혼남녀들,
왜 결혼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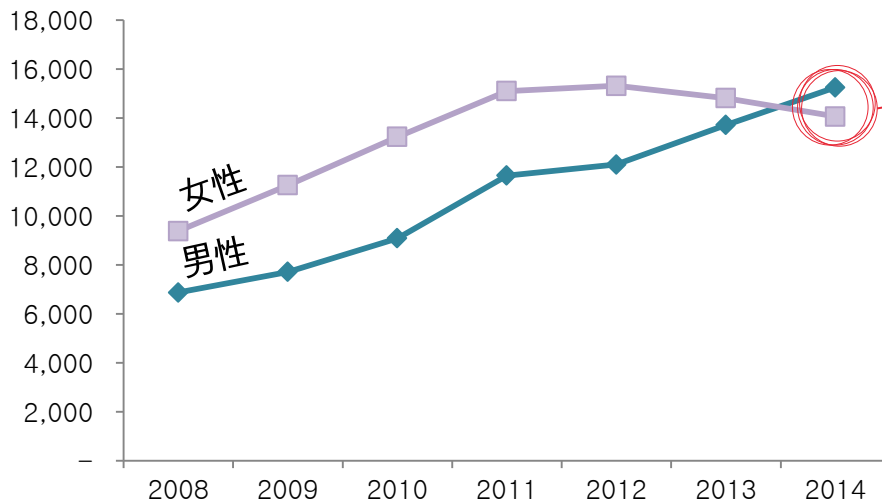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듀오 회원수 추이

(출처: 듀오, 2014)

01

성별 듀오 가입자 추이



6년 전 대비
여성 회원수는 약 50% 증가
남성 회원수는 약 1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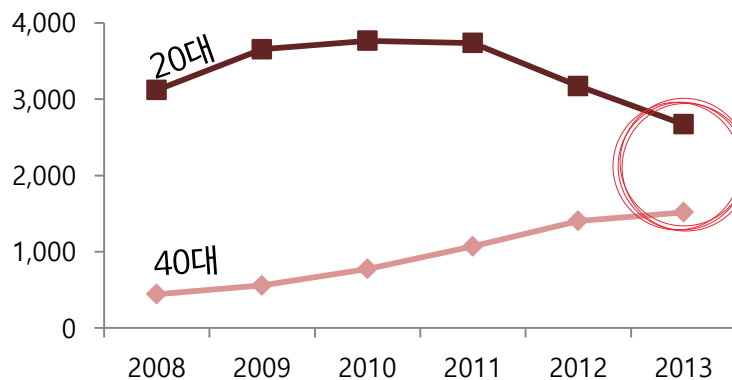
➔ 만혼 현상으로
남성 회원수가 급증

02

03

04

듀오 2040 여성회원 가입자 추이



5년 전 대비
20대 여성은 약 15% 감소
40대 여성은 약 242% 증가

➔ 전체적인 미스 매치로
여성 회원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 발생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결혼 기피 현상

01

“국민 40%,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02

※ 결혼, 꼭 해야 하는가?

03

04

38.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통계청, 2014 사회조사)

※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84%

결혼을 위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2.4%

안정된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서

77%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출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결혼과 경제

01

결혼을 통한 '부의 재분배' 약화

02

“부모 세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결혼'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

03

04



“장기적인 만혼·비혼 현상으로
경제가 비활성화되고 부의 재분배가 약화”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청년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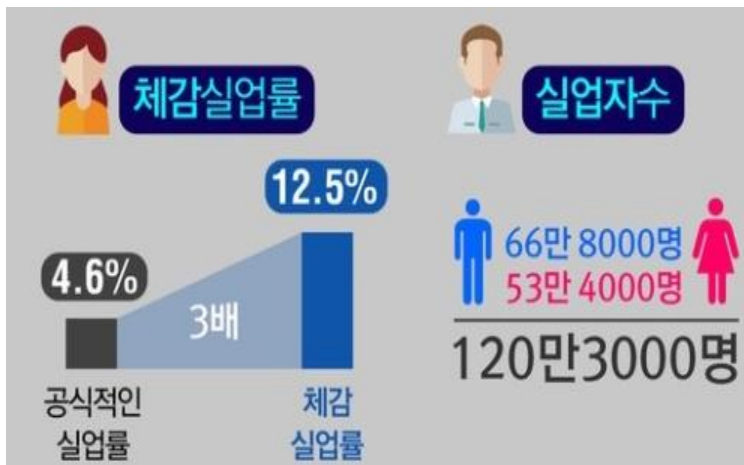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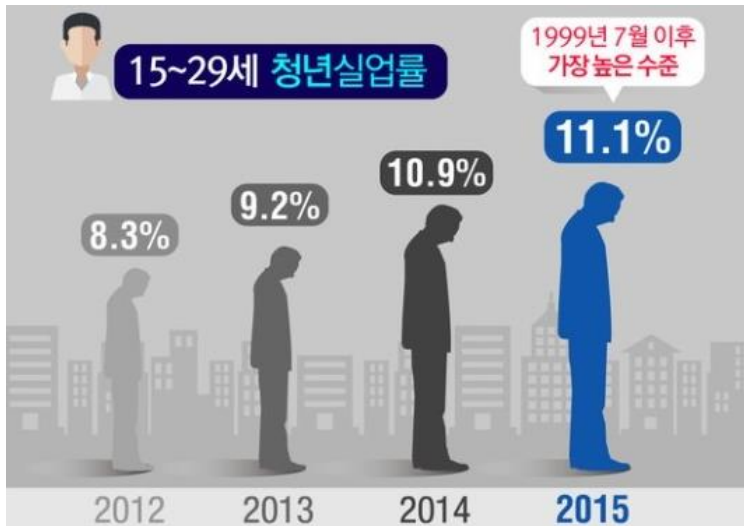
01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는 청년 실업과 같은 맥락”

02

03

04



(출처: 통계청, 2015)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 실업률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결혼 포기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통계로 보는 국민 의식: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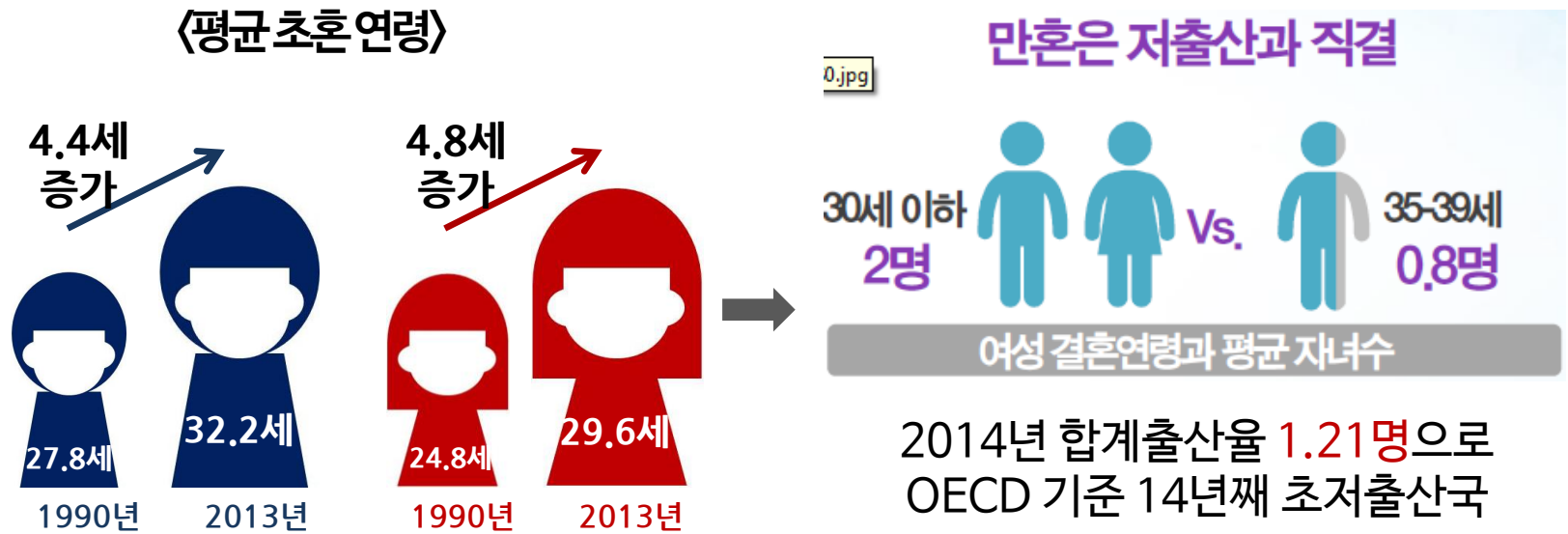
01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 확산”

02

03

04



(출처: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결혼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

시대의 부정적인 분위기

01

“결혼에 부정적인 시대의 분위기”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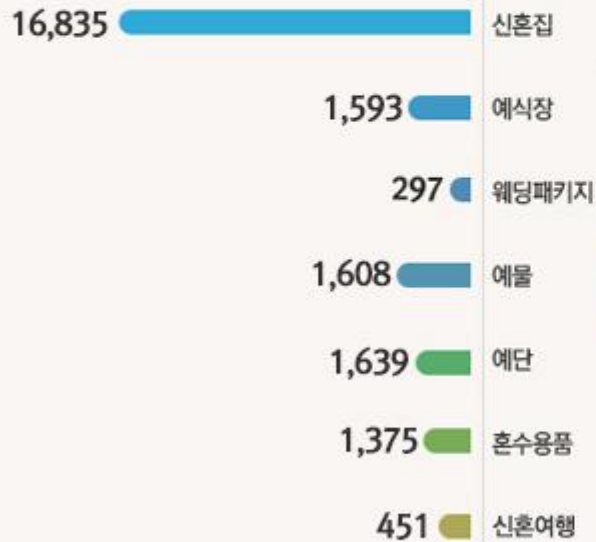
- ‘삼포’ 세대의 증가
- 나날이 치솟는 결혼 준비자금
- 더욱 쪼들려가는 2,30대 싱글 경제
- 외려 결혼을 말리는 듯한 방송 프로그램
-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기혼자들의 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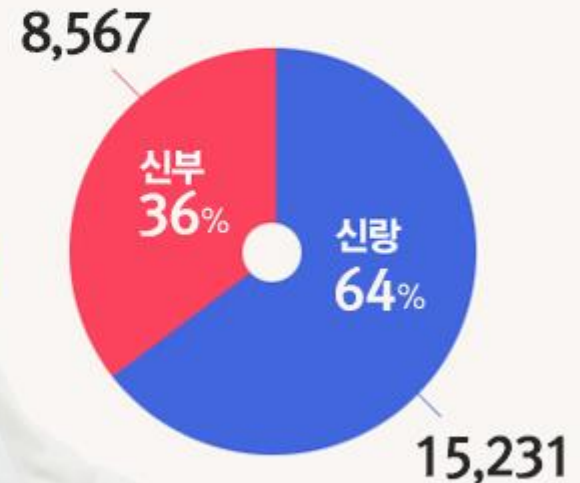
“2015 신혼부부 한 쌍의 실제 결혼비용은 2억3천798만원”

2015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결혼준비 품목별 지출비용 (단위:만원)



신랑신부 지출비용 (단위:만원)



합계
23,798

자료출처: **네듀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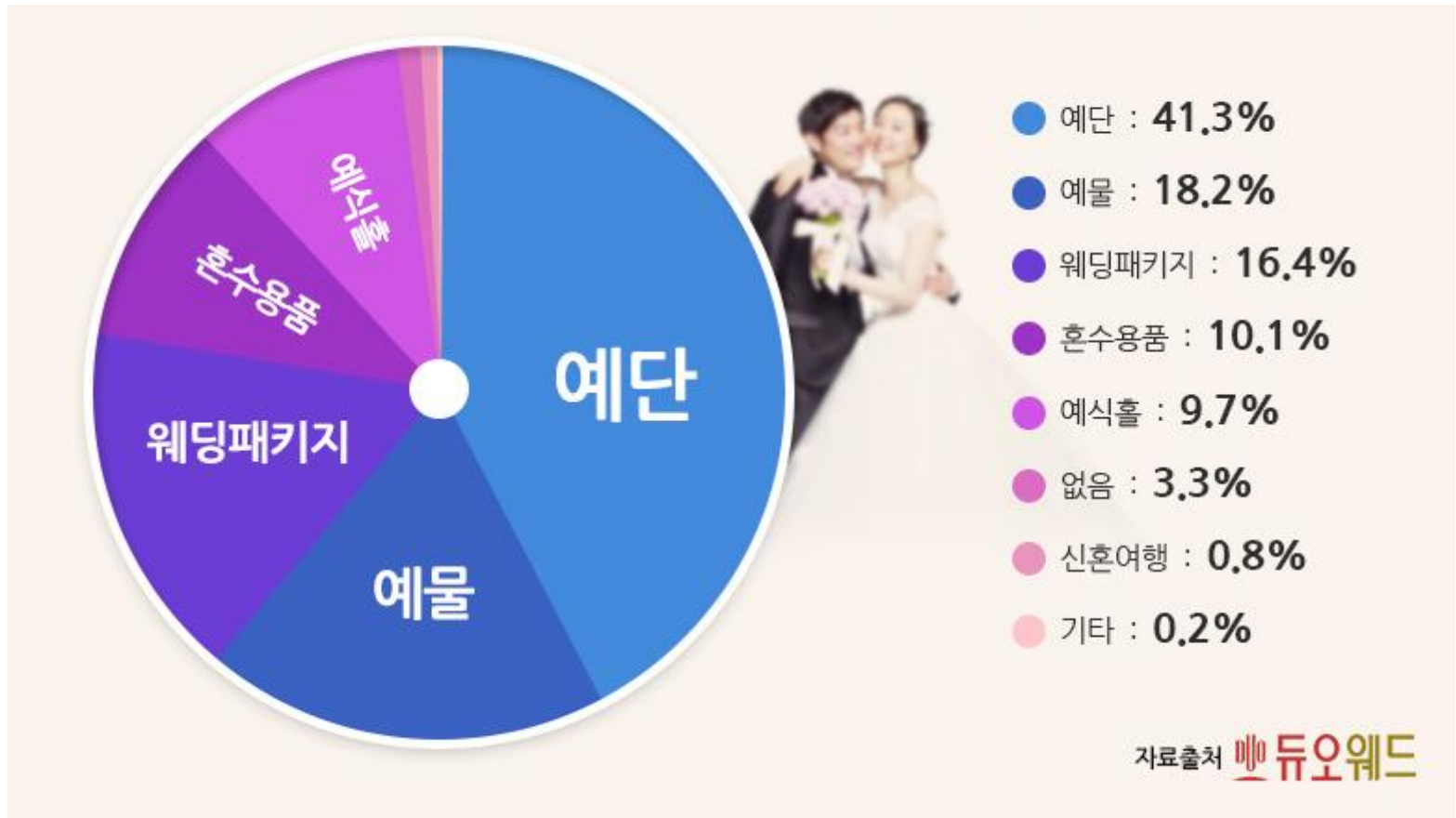
01

신혼부부가 후회하는 결혼 준비 품목: '예단', '예물'

02

03

04



비용 절감, 결혼의 참된 의미가 담긴 **‘자립결혼식’ 문화 정착**

현대사회 결혼 문화

01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결혼 준비 시스템

02

03

04

- **스드메** 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
- **스튜디오** 리허설 웨딩 촬영을 하는 곳
- **드레스** 본식드레스 + 촬영용 드레스
- **웨딩컨설팅** 스텝부터 결혼에 관한 모든 준비를 대행해주는 곳
- **워킹** 컨설팅 업체나 플래너를 끼지 않고 본인이 웨딩을 진행하는 것
- **데이트스냅** 사진작가를 고용해 데이트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
- **웨딩홀 패키지** 스텝을 웨딩홀에서 준비하는 패키지
- **메이크업** 신랑, 신부 메이크업뿐 아니라 혼주와 가족 메이크업까지 포함
- **셀프 웨딩 촬영** 요즘 유행중인 웨딩 촬영 방식으로, 스튜디오 촬영 대신 지인이나 작가를 고용해 웨딩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셀프 웨딩?
스드메? 드레스 투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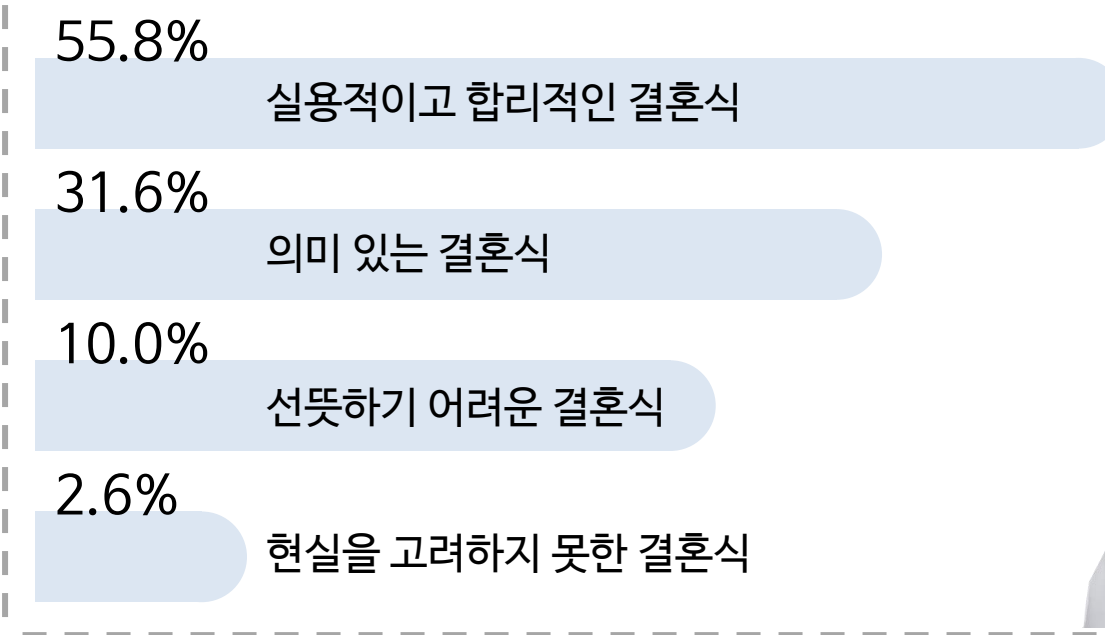
“허례허식 지양하고 자립결혼식 도와야!”

02

03

※ 당신이 생각하는 자립결혼식이란?

04



(출처: 듀오월드 1000명 대상 설문조사, 2015)

➡ 실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자립결혼식’ 문화 정착이 시급!

Chapter 3

결혼 & 의식 변화

1. 각종 사회적 문제
2. 청소년의 의식 변화
3. 결혼 문화 개선 방안
4. 결혼 권하는 사회

각종 사회적 문제

01

비정상적인 사회 문제 발생

02

전국 노부모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대전/충남

등록 일시 [2014-10-23 16:08:07]

금인쇄하기 이메일 링크에 도착

【대전=뉴시스】 문승현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모(39·무직)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동구 자택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70)와 어머니 백모(66)씨를 흉기로 10여차례씩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20여분 뒤 집을 나가 5시간여 대덕구 일대를 배회하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54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2시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집안 화장실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

이혼 뒤 사실혼 관계 50대 주부, 잠든 남편 베개로 눌러 살해 '질식사'...왜?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이 잠든 사이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주부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먹고 베란다 바닥에 잠든 것을 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려다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여성 살해한 前구의원, 범행동기는 '질투심'

NEWSIS

기사입력 2009-06-22 18:40



무부싸움 중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모 자치단체 전(前) 구의원 출신 A씨(52)는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범행일체를 부인해오던 A씨가 이날 오후 현장검증 직전 아내 B씨(44)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살해동기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사회, 장기적 경기 침체, 분노 조절 장애 등이 각종 사회 문제 야기

청소년의 의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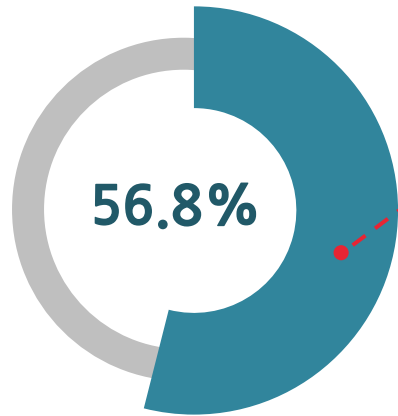
01

청소년 56.8% “혼전 동거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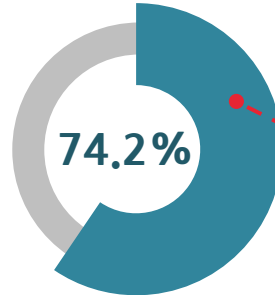
02

03

04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

(출처:여성가족부, 2015)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에
‘취업’뿐만이 아닌 **‘결혼’에 관한 교육 도입이 시급!**

그렇다면 ?
결혼이 답일까

“결혼이 미래다”



결혼 문화 개선 방안

01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02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 ◆ 기업문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강조

03

04



※ 박근혜 대통령은 2.6(금)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결혼 문화 개선 방안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체들의 노력”

“결혼 안해?” 이 만마오...

미혼남녀 32.6% “가장 듣기 싫어
귀성 스트레스 1위로 꼽아

명절 뒤 결혼정보업체 가입 많아

설, ‘삼포세대’도 어깨 펴고 오기를

내일부터 설 연휴다. 올해는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 고향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할 듯해 귀성객

공무원 배우자 찾지만...결혼행진은 33~36살 회사원과

도청도설

모바일 세뭏돈

난다

세배(歲拜)의 의미는 어르신에 무사히
또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자
손들이 기뻐하며 드리는 문안 인사다. 비
단 친족뿐 아니라 동네 이웃사람들이 우
르르 몰려다니며 예를 갖추는 데 대해 빈



하고 살래, ‘에는 언제 낳을 거니’ 같은 잔
는 순위에서 오히려 뒤로 밀릴 정도다.

결혼비용, 아들

연중기획 반되 시대

반되세대 노후 위협하는 주범

의 그림자는 설 명절의 흥겨운 분위기로도 쉽
게 감지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끼리 웃음꽃을 피우며 얘기를 나눠야 할
자리가 특히 부담스러울 이들이 있다면 바로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이다.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독촉을 받지만 감히 결혼할 엄두를 못 내

않는다. 한 웨딩컨설팅 업체가 최근 2년 내 결
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

표한 ‘2015
혼부부 한
인을 사용
려라도 웬만
모아야 간
들은 결혼
를 대주려
할 만큼 큰
기하는 젊
현실이다.
은 대지에
생명의 사
婚)·불임
우리 사회

있을 듯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설이다. 고향의 온
기로, 가족의 정으로 이 같은 ‘삼포’의 현실을
보듬어주길 바란다. 현실을 잊으라는 것이 아
니라 그 고단한 현실을 이겨나갈 힘과 의지를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다고 할 수 있다.

김영규기자 baek0419@hankook.co

정당에도 자

한다. 그저 인

는 것이다.

은 새로운 상

거 가고 싶어

사를 원했다

않았다 보니

다른 사실을

장은 고개를

세 번이나

한다든 생각

는 ‘모바일 세뭏돈’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 결제 플랫폼을 갖춘 중
국 최대 전자상거래 포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세뭏돈 주기 이벤
트에 나섰고, 국내 다음카카오도 맞불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
순한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에서 벗어나 현금을 스마트폰으로
받아 활용하는 시스템. 중국의 경우 올해 모바일 세뭏돈 규모만도
70억 위안, 약 1조20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다.

붉은 과일도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 ‘홍동백서’ ‘어동육서’의
전통 차례상에 차진과 피자가 배열되는 시대다. 평소 커피를 즐긴
선천이면 속 대신 커피를 올리는 ‘퓨전 제사상’은 보기에 따라 매

공유가치창출(CSV): 공익적 메시지 + 재미/감동/스토리

“실속+개성 모두 잡는 신세대 결혼식”



똑같은 것은 싫다 ‘결혼식도 DIY’

결혼식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톱스타 이효리·이상순 커플의 소박한 제주도 결혼식에 이어 조정차·정인의 지리산 등반 결혼식이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현상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다. 비싸고 불편일수록 결혼식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나만의 웨딩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추세다.

최근 2층 집을 개조한 하우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치른 김모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꽃과 리본으로 실내·외를 꾸미고, 10년간 데이트를 이어 온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인쇄해 예식장 곳곳에 전시했다. 그간의 긴 러브 스토리는 책으로 만들어 하객 테이블에 올려뒀다. 스튜디오 웨딩촬영 대신 결혼식 당일 ‘파파라치 포토그래퍼’를 고용해 스냅사진으로 웨딩 앨범을 제작했다.

김씨는 “부모님과 하객들의 자연스러운 표정 등이 담겼고, 남편과 나 역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사진이 나와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면사포와 웨딩드레스를 빌려 셀

풍속도 급속 변화…‘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유행

셀프 웨딩사진 촬영·맞춤 제작형 허니문 등 증가

프 웨딩사진을 찍은 문모씨는 자주 데이트를 즐겼던 한강 둔치, 첫 여행을 떠났던 장소 등 익숙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단짝 친구들을 여행지로 초대해 함께 사진을 찍고 그날 정침장도 전달했다. 문씨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던 남편도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가 나왔고, 과거 추억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까지 두고두고 꺼내 본다”고 전했다.

길어진 불황에 필요없는 부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셀프 웨딩촬영 업체가 크게 늘었다. 전문 포토그래퍼 없이 스튜디오만 대여해 커플끼리 사진을 찍는 형식이다. 면사포·턱시도·웨딩드레스를 대여·판매하는 인터넷 업체도 클릭만 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모디슈머’ 현상이 일면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적인 예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담은 예식을 만들고 있다. 평소 부부가 좋아하던 타악기 음악으로 입·퇴장 시 배경음악을 바꾸거나 마술 쇼를 넣는 등, 결혼식을 아예 뮤지컬 형식으로 꾸민 부부도 있다.

신혼여행도 마찬가지다. 휴양지 중심의 패키지 여행이 좋고 멕시코 칸쿤, 타이티, 유럽 자유여행 등 맞춤 제작형 허니문이 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만 가이드가 동행하기도 한다. 청취자를 예비 부부가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 주상용품 혼수세트 역시 맞춤형이다. 이에 맞춰 후술리코리아는 올 봄·여름 시즌 개개인의 요리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맞춘 10종류의 웨딩 컬렉션을 내놓았다.

최근 몇년간 복잡한 웨딩홀이나 값비싼 호텔

예식의 대안책으로 하우스 웨딩이 성업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적은 인원밖에 참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하우스 웨딩의 원조격인 ‘더 베일리 하우스’는 리모델링과 함께 1000만원대 예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웨딩 프로듀서(PD)를 두어 결혼식 기획·연출에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준다. 지난 가을 하우스 웨딩홀로 리모델링한 ‘더 베일리 하우스’도 한국식 결혼 풍습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만족스러운 DIY(제작·수리·장식 등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 결

김은선 듀오웨드 수석팀장은 “개성있는 결혼식 역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추가 비용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뿐인 결혼식에 마음을 상할 수 있다”며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비용 절감이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일 기자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01 | “실속+개성 모두 잡는 신세대 결혼식”

02 **서울경제** 고가반지·웨딩촬영·예단 'No'... '신 삼포세대' 결혼문화 바꾼다

03 新 삼포세대는 **틀에 박힌 결혼식 절차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결혼식을 다양하게 연출**한다. 결혼준비도 이전처럼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축제를 준비하듯 즐겁게 처리한다. 주변의 시선을 고려한 과도한 예물이나 예단은 아예 생략하고 대신 사돈 동반여행으로 대체하거나 하객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등 **결혼을 진정한 인생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04.17)

04

MK 뉴스 [Cover Story] 자리 잡는 작은 결혼...하객 ‘민폐’ 줄이고 가족 축제

규모가 작다고 결코 초라한 결혼은 아니다. **최근 유행하는 ‘쿨(Cool)’한 결혼식은 허례허식과 하객에 대한 민폐(?)를 줄이고, 색깔 있는 이벤트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앞장선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작은 결혼 문화를 이끌어간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4대 종단 지도자와 함께 ‘작은 결혼 문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2015.04.17)

MBC NEWS [뉴스플러스] 결혼 新 풍속도...달라진 결혼관

일생에 단 한 번,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도 역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웨딩홀이나 웨딩 사진은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성 있거나 자신만의 취향을 살려서." 결혼 비용도 아끼면서, 개성 있고, 실속 있는 결혼을 한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인류지대사'에서 삶의 한 방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된 결혼. 달라진 가치관만큼이나 새로운 얼굴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5.02.28)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



-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 ◆ 청년 고용 활성화
- ◆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 ◆ 직장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확대
- ◆ 임신·출산 비용 보장성 강화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보건의료사업 투자 강화

근본적인 청년실업난 해소 및 신혼부부 보호가 우선 과제!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결혼 장려 캠페인

-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결혼친화 분위기 확산
-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범국민적 결혼 문화 캠페인 전개
- ◆ 행복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최기관 MOU 체결(5월)
- 정부, 기업의 참여를 위한 캠페인 협조 공문 발송(5월)
- 민간기업 등 각종 단체와 캠페인 동참 협약 체결(6월~)
- 민관 합동 결혼·출산 장려 캠페인 활동 계획 수립(6월)
- 인구의 날, '결혼이 미래다' 캠페인 선포식 진행(7월 11일)

[2015.04.06 스포츠월드]

듀오·대공협 “결혼 장려위해 힘 모으겠다”

[전경우 기자] 듀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대공협)와 결혼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일 듀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듀오 박수경 대표(사진 오른쪽)와 대공협 백동원 회장 등이 참여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의 건강한 저령기 혼인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듀오는 20년 간 누적인 만남 노하우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미혼 의사들에게 체계적인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과학적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에 맞춘 이상적인 이성을 소개하고, 전문 파티플래너가 기획한 이색적인 미팅파티를 진행한다. 결혼식까지 돕는 '원스톱 결혼준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대공협은 공보의 회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결



혼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이를 대내외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공협 홈페이지에 듀오의 결혼정보 콘텐츠를 연동해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혼인 장려 프로젝션을 전개한다. 공청회, 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대공협 주최 행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의 긍정적인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전폭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2015.03.10 세계일보]

“만혼·저출산 근본 원인은 청년 취업난 기혼자에 취업 가산점 주면 어떨까요”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gye.com

“심각한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좀더 일찍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박수경(사진) 듀오정보 대표는 9일 “젊은 세대들의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어 결혼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극심한 취업난이 만혼

의 원인”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혼한 취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의 혜택을 주면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업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이 확보돼야 결혼을 생각하는 현실을 바꾸 보자는 취지다.

저출산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당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2012년 1.30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다. 현재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박 대표는 “결혼정보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출산정책은 보건복지부,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로 각각 나뉘어 있어 저출산을 해소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며 “저출산을 해결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듀오정보 대표로 취임한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던 2000년 아모레퍼시픽에 영입돼 소비자마케팅연구소장을 지냈다.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01

“적령기 출산 장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02

◆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듀오의 출산 장려 캠페인

03

◆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캠페인

04

가정의 달 5월 맞이, 다둥이 가족 지원 프로젝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 다둥이 가족사랑 명예의 전당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다둥이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뽐내고, 특별한 추억까지 가져가세요!

다둥이 가족사랑 명예의 전당

듀오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2015 다둥이 가족사랑 명예의 전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하나 둘 또는 셋, 또는 그 이상 다둥이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남다른 다둥이 자녀사랑과 부부애를 지닌 분들의 아름답고 특별한 가족 사연을 모집합니다.

참사랑을 실천 중인 세(3) 가족을 선정해
가족사랑 지원금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다둥이는
행복해요~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기업, 국회, 정부, 언론, 학회,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



결혼이 미래다!

결혼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01

결혼 관련 정책 제언

02

03

04

- I. 결혼·출산 장려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II. 저출산 고령화 재단 설립
- III. 자녀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제도 개선
- IV. 결혼 장려금 지원
- V. 기혼자에 취업가산점 부여
- VI. 결혼 관련 업체 면세 사업 지정



A romantic photograph of a couple holding hands.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dark suit with a white shirt cuff visible. The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white lace-trimmed dress. They are standing outdoors with a blurred background of green hills and blue mountains under a soft sky. The text "THANK YOU" is centered over the image in a large, white, sans-serif font.

THANK YOU